

## 2025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 지원심의 총평

### ■ 2025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1차 서류심의 총평(연극/뮤지컬)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1차 통합심의  
- 연극/뮤지컬
- 회의일시 : 2025년 12월 6일(금) 10:00~15:00 (1차 서류심의)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영배, 배근영, 이지은, 임홍석, 함형식

본 사업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고 우수한 레퍼토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5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사업은 신작 제작유형과 2차 제작유형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 심사기준의 구체성을 갖고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고 나아가 예술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올해 총 지원 건수는 403건이었으며, 신작 237건, 2차 제작 16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연극·뮤지컬 분야의 경우 신작 97건, 2차 제작 93건이 접수되었고, 신작의 경우 사전행정결격 17건을 제외한 80건, 2차제작의 경우 사전행정결격 6건을 제외한 87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는 연극·뮤지컬 분야 심의위원 5인이 온라인 전수검토 및 채점을 진행하고 대면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1차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신작의 경우, 작품의 창작의도와 소재의 참신성, 표현 방식의 예술성, 기획의도의 명확성, 주요 관객에 대한 고민, 창작자의 역량 및 제작계획의 구체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차 제작의 경우, 기존 작품의 성과 및 작품성, 2차 제작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예산계획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사업의 특성, 예술계 주요 이슈, 시장현황 등)에 의거한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람 연령대 및 지역분배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신작의 경우, 지원신청서 상 청소년극으로 분류한 작품의 비중이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동시대 청소년극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어두운 소재 혹은 주제를 다룬 청소년극이 많아 청소년극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의 부재가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차 제작의 경우, 우수한 작품의 지원이 많아 2차 인터뷰 심의 대상 건을 선정하는데 심의의원 간의 상당히 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2차 제작 유형은 신작 제작 유형

과는 달리 기획의도의 명확성과 참신성과 더불어 2차 제작의 발전 방향의 구체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차 제작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에서는 주제 및 형식 면에서 우수한 작품이지만 이전 공연과 동일 극장에서의 반복 공연, 표현방식과 관람 대상 연결의 아쉬움, 발전계획과 상이한 예산 편성 등의 아쉬운 부분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2차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한 양질의 어린이·청소년극을 개발하고 레퍼토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동시대 어린이·청소년극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어린이·청소년극을 대하는 예술가의 진정성 등이 돋보이는 공연이 많아 국내 어린이·청소년극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으로 지원 예산에 비해 적은 회차의 공연을 제안한 다수의 작품을 보면서 단순 창작의 관점을 넘어 실질적으로 어린이·청소년 관객과 만나고자 하는 고민도 깊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예술가 개인의 작업을 넘어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어린이·청소년극을 발굴하고 확산하여 어린이·청소년극의 예술 지평 확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심의위원 일동

## ■ 2025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1차 서류심의 총평(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복합)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1차 통합심의  
-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복합
- 회의일시 : 2025년 12월 5일(목) 10:00~18:00 (1차 서류심의)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공혜진, 심상욱, 윤동희, 장성은, 홍영주

2024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를 개최하여 예술 현장의 침체된 창작 의욕을 일깨우고, 순수예술이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의 방향과 방식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창설, 구 학전극장 재개관으로 탄생한 아르코꿈발극장 운영, 중앙-지방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국립어린이아트컴플렉스 조성사업 등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5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창작물(공연, 전시, 발간) 가운데 완성 단계의 신작 지원과 기존 완성 작품의 보완 및 발

표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1차 서류심의는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복합예술 분야를 통합하여 다섯 명의 심의위원이 진행하였고, 영유아·어린이·청소년 예술 분야의 창작(공연, 전시, 발간)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중점에 두고 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필수 제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결격한 음악 분야의 20건을 제외하고 무용 40건, 음악 30건, 전통예술 34건, 시각예술 20건, 복합장르(그림책 발간, 장르 결합, 다원예술) 69건 등 총 193건이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장르에 걸맞게 심의위원의 전문 분야도 무용·음악·전통예술, 시각예술·복합장르로 편성되어 공정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는 연극·뮤지컬 분야를 포함하여 10명의 심의위원의 통합심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서류 심의 및 인터뷰 심의, 총 2차로 진행된 심사는 심의 기준에 의거하여 채점 및 다득점 순으로 결정하였습니다(평점 75점 이하 과락). 채점 및 다득점 기준을 부합한 지원작 중에서 동률인 경우, 심사위원들의 현장 경험을 기준으로 시대성, 장르, 지역, 기존 지원 및 수혜 이력, 희망 예산의 합리성 등 '열린' 태도로 토론하여 선정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심사위원 각자의 전문성이 미흡한 장르 및 영역은 해당 장르에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타 심사위원의 의견을 경청하여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한 작품 및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심사위원이 압도적으로 높은 평가를 준 독보적인 작품 및 프로젝트는 없었으나, 심사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형편없는 작품 및 프로젝트도 없었다는 점은 우리 문화예술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되었음을 증명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다원예술'을 기초적 매체 수준으로 반영하는 데 그친 창작 주체들이 자신들만의 장르적 특성을 바탕으로 문화 소비자의 눈높이에 근접하는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와 매체와 수용자의 취향 및 니즈에 맞춰 문화 현장 종사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메타버스, AI 등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기술 문화와 맞물려 시대를 반영하는 결과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의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은 모든 삶의 경험을 '온라인'에서 영위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출판 지원 프로그램에 제약이 따라서였을까요?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발간(그림책) 분야가 양적으로 증가한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그 비중이 현격히

줄어든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해당 분야가 다원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될 수는 있겠으나, 그림책이라는 단순 출판 발간 프로젝트를 인위적인 오프라인 행사로 커버하고자 하는 점이 아쉬웠는데 그런 문제가 사라져서 다행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모든 지원 프로그램에서 해마다 반복되듯이 지원하는 창작 주체들이 자신들의 고정적인 레퍼토리를 반복하거나 일부만 변형시켜 참여하는 모습이 여전한다는 것입니다. 장르 및 작품에 대한 동시대 흐름, 해외 사례를 고민하거나 참조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에서 지역(로컬)에 대한 배분은 중요한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들 역시 이 점을 깊이 고려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중앙에 대한 역차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혀둡니다. 그럼에도 지역(로컬)의 문화예술 종사자(개인, 단체)에게는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심사에 임하며 국내 지역(로컬) 문화예술이 해당 지역의 고유한 '스토리텔링'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전지구화'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일상어가 된 오늘날, 중앙과 지역이라는 이분법으로 장르, 매체, 방법론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인 접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이든 지역이든 해당 지원 사업의 대상인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을 기준으로 해마다 '다르게' 접근하고 준비하는 창작 방법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사용자 또는 (문화) 소비자의 취향과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창작 못지않게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마케팅 및 브랜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지원 주체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마케팅에 있어 기초적인 수준에 그친 점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자신들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현재'를 점검하고, 예술 창작물을 향유하고 감사하는 사용자(소비자)를 '페르소나' 삼아, 어떤 일정·단계·방법으로 전개할지 설명한 주체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기존에 반복해온 창작 및 홍보를 벗어나 문화예술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조사-기획-마케팅(브랜딩)-회고의 과정을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지원사업에 선정된 문화예술 창작자들의 각별한 노고가 2025년 국내 문화예술 현장 곳곳에서 꽃피우길 기대합니다.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해준 모든 문화예술 창작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 사업을 성심껏 준비하고 실행하고 점검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

## ■ 2025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2차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2차 통합심의(전체 분야)
- 회의일시 : 2025년 12월 20일(금)~21일(토) / 20일(금) 신작제작, 21일(토) 2차제작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공혜진, 김영배, 배근영, 심상욱, 윤동희, 이지은,  
임홍석, 장성은, 함형식, 홍영주

본 사업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고 우수한 레퍼토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응모 작품의 수가 증가한 것을 통해 본 사업에 관한 관심과 기대가 늘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이는 어린이 청소년 작품이 관객을 만날 기회와 창작진의 창작 역량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은 복합장르로 구성된 어린이·청소년 공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형별 심사 기준의 구체성을 갖고 우수한 작품이 발굴하여 예술적 가치 실현하도록 장르 통합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총 지원건수 403건 중 신작과 2차 제작 유형 각각 237건, 166건이 접수되었고, 1차 심의를 통해 23건과 18건을 선정하여 2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신작 16건, 2차 13건의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신작의 경우, 작품의 창작의도와 소재의 참신성, 표현 방식의 예술성, 기획의도의 명확성, 주요 관객에 대한 고민, 창작자의 역량 및 제작계획의 구체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습니다. 2차 제작의 경우, 기존 작품의 성과 및 작품성, 2차 제작 발전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예산계획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선정의 과정에서 지역안배를 고려하였으며, 동일조건 또는 동점의 경우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에서는 제출자료 기반으로 하여 어떻게 예술적으로 작품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이야기부터 이주민, 장애 등의 어린이·청소년 예술에서의 아젠다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어린이·청소년 예술의 시청각적 확장을 꾀하는 작품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소외된 지역 아동에 관한 생각, 구체적인 관객층을 고려한 홍보계획 등 어린이·청소년 예술의 확장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고민하는 창작진들의 진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작을 개발하고 2차 제작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볼 때, 대상에 대한 명확한 관점보다는 아젠다 중심의 개발 계획으로 지원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이 다소 어긋난 지점도 발견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 내용을 본 사업의 취지와 창작자의 의도를 확인하며 심의하는데 숙려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아닌 본 지원사업을 위해 작품의 대상을 변경한 사업들도 있어 여전히 어린이·청소년 예술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도 이야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층면접을 통해 단체가 구현하고자 한 작품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획되고 제작을 계획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과도한 예산계획을 작성하여 창작개발 계획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편성된 예산의 항목의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일부 항목의 예산이 높게 편성된 경우 당위성을 확보하거나 감액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인터뷰 심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개발(발전)계획과 예산계획의 적절성과 충실성 또한 심의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심의에 반영하였습니다. 2차 제작 유형의 경우, 영상을 활용한 시각적 효과 보안을 시도한 다수의 단체가 있었으나 그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장르의 본질과 어긋나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종선정 과정에서 지역 예술단체들의 균형 지원을 위해 심사숙고하였으나 본 사업의 지원목적과 방향에 미치지 못해 신청 건에 비해 더 많은 지역예술단체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심의에 논의된 작품들 모두 기발한 상상력과 참신한 전개, 동시대 어린이·청소년 예술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작품이어서 최종선정의 과정에서 심사기준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며 최종 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는 2차 제작 작품의 공연 예정 횟수에 대한 부분은 다시금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모두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지원 예산에 비해 적은 회차의 공연을 제안한 다수의 작품을 보면서 단순 창작의 관점을 넘어 실질적으로 어린이·청소년 관객과 만나고자 하는 고민도 깊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단회차 공연으로 작품을 실험하고 성과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회차 공연으로 더 많은 관객을 만나고 어린이·청소년 전문예술단체로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지원의 목표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선정 단체의 제작계획에 대해서는 숙고와 변화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작의 수가 상당히 많아 어린이·청소년 예술지원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예술을 대하는 예술가의 진정성과 참신한 소재 개발 및 독창성의 관점에서 향후 더 많은 관심과 발전이 기대되며, 최종선정 작품들이 어린이·청소년 예술지평 확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일동